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40명 신규 채용

작년 대비 27명 증가... 4월 20~24일까지 필기시험 원서 접수 받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240명으로 작년에 비해 27명 증가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201명(일반 188명, 장애 9명, 저소득층 4명), 전산직 4명, 사서직 8명,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5명,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7명, 기록연구(기록관리)직 2명, 운전직 13명이다.

이 중 공업직(일반기계, 일반전기) 2명과 시설직(일반토목, 건축) 3명은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이다.

단, 기록연구사는 20세 이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돼 있거나,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필기시험 원서는 4월 20일부터 24일 까지 5일 간 도교육청(<http://edurecruit.je.go.kr>) 교직원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필기시험은 6월 13일, 인적성검사는 7월 18일, 면접시험은 7월 29일에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운전직렬에 대

한 응시자격 요건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된다.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으로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차량의 길이는 9미터 이상이다.

아울러 임신부와 장애인 등 신체장애로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접지문제지, 낮낮이 조절책상,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시험/채용정보 > 지방공무원시험)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주)대성개발은 2일 전주비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홍순직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성개발, 전주비전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3월 개강 대비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유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3월 개강을 대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금 유치를 나섰다.

이에 (주)대성개발(대표 장영철)은 2일 전주비전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홍순직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영철 대표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는데, 대학에서도 감염예방 물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부금을 통해서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등을 구입해 재학생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하고, 또한 지역 내 감염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비전대를 생각해 주는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현재 비전대는 전 교직원 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 총장은 "대성개발의 값진 발전기금을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격려 생활 복지지원, 재학생 취업역량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교내 건물 전체 방역·소독

비상대책위원회 개설·수시 회의 진행해 지속 관리키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강의실, 실습실, 행정동, 기숙사 등 교내 건물 전체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호원대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 수시 회의를 진행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전체 학부(과) 및 행정부서에

서는 수시로 발열체크 및 교직원들의 상태를 상시 파악 중이며,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손 소독제 배부를 통한 개인위생수칙을 실시하고, 강의실과 기숙사 등 교내 전반의 방역 실시를 통해 감염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대응수칙을 준수하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을 즉각 반영해 대처할 것이다"며,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대학의 공지사항과 알람을 잘 확인해 건강하게 개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육공무원 보직인사 발령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2일 대학본부 2층 총장실에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연수원장에 김주성(사회교육과) 교수, 도서관장에 권오성(체육교육과) 교수, 영재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에 채동현(과학교육과) 교수, 초등교육연구원에 은혁기(초등교육과) 교수, 산학협력단장에 천호성(사회교육

과) 교수가 각각 발령됐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인성교육원장에는 최병연 기획처장이 겸무를 맡았고, 대학언론사주간에는 정한기(국어교육과) 교수가 임명됐다.

김우영 총장은 "새롭게 보직에 임명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우리대학이 선도적인 교육대학교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온 역량을 보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2일 대학본부 2층 총장실에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주대, 개강 3주 연기 결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개강을 3주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16일 개강 예정이었으나 이를 1주를 더 연장해 23일 개강하기로 결정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며 실제 등교는 30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대는 개강이 3주 연기됨에 따라 서 보강주간 1주를 감축하고, 여름방

학을 2주 늦춰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 15시간을 준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온라인 수업도 검토 중이다.

이호인 총장은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며 "건강한 캠퍼스를 유지하고, 수업과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공간혁신 촉진자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생이 원하는 학습·휴식 공간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 공간혁신 촉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공간혁신 촉진자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을 촉진·유도·조정하고 학교 구성원과 설계자, 시공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교수 등 건축교육 전문가, 건축사, 실내 인테리어 관련자, 학교 공간혁신 프로젝트 유경험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탑재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업무담당자 이메일(psm0486@korea.kr)로 발송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

도교육청, 9~27일까지 추모 창작시·창작곡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6주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추모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공모전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행사 참여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공모분야는 추모 창작시와 창작곡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그 날),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주제로 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o.kr>)에서 공모전 접수 게시판에 작품 제목과 작품

소개, 출품자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공동작업에 의한 창작곡인 경우 제작자 및 참여자를 명시해야 한다.

창작시는 한글문서와 손편지 형식의 A4 1매 규격으로 1인당 3편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창작곡은 3~5분 내외 분량으로 1인당 2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우수작 선정시 창작시는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선정하고 창작곡은 구분없이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3월 30일~4월 2일까지 심사를 거쳐 4월 3일 최종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각 분야별로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각급 학교 계기 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추념 행사시 우수작으로 소개된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